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중국,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전남도, 수산물 중심 對中 수출 크게 증가”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전남도, 수산물 중심 對中 수출 크게 증가

올 들어 9월 말까지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중국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일 전라남도가 9월 전라남도 수출 동향을 집계한 결과 9월 말까지 농수산물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3천 720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013년 4천 300만 달러로 정점을 나타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한류 인기,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중국 수요를 겨냥한 제품 개발,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대중국 마케팅 활동 등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남의 수출 실적은 최근 사드 문제, 대중국 식품 수출 성장률 둔화, 통관거부사례 증가 등을 뛰어넘고 이룬 성과여서 큰 의미를 가진다.

품목별로는 전복 950만 달러, 김 630만 달러, 미역 41만 달러 등 수산물이 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향후 비관세장벽을 넘어서 대중 식품 수출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현지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향후 전라남도는 연간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11~12월 중국 북경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북경·상해 시장개척단 파견, 무한·대련 판촉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연말 수출량이 더 많은 점을 감안, 올해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위생검역 강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